국내 수도권 지역 새터민 청소년들의 적응 실태 조사

한동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NKFR(North Korea Field Research) 2기 훈련팀[1]

I _Prologue – "마지막 시대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셔서 그분의 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땅의 끝이 어디입니까? 120년전에 한반도는 땅끝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땅의 끝은 한반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서구의 크리스천들에게 땅 끝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땅 끝은 북한을 넘어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또 다른 열방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중차대한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분단 국가…. 한 쪽은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 모든 것이 참 풍족한 나라, 다른 한 쪽은 4년 연속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오픈도어즈), 모든 것이 너무 부족해서 백성들이 탈출하는 나라….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하기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민족이었다는 것 외에 절대 조화될 수 없는 남한과 북한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귀한 증인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NKFR(North Korea Field Resesrch) 2기 훈련팀 에서 2006년 7월 6일 - 28일까지 국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의 적응 실태를 현장조사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한반도가 통일 되기를 소망원하십니다. 틀림 없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성품중의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요 17: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남한과 북한뿐 아니라 조선족과 고려인까지도 연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때야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흩으신 이유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섬기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와 역사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촛대는 옮겨질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기도 하신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될 때, 우리는 그때에 모든 일을 능히 감당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곧 탈북자 만 명의 시대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남한사람과 북한사람과 조선족이 하나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가는 길목에서 고려인들이 대기 중입니다. 현재 그들은 복음의 열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사람, 한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손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II_서론

"이 시대에 새터민청소년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가"

우연은 없다. 자신이 삶을 살면서 겪었던 또한 겪고 있는, 겪을 일들 모두 우연이 아니다.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음을, 그 분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옳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실 것이다. 그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앞을 내다보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탈북자 1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우연은 없다. 그들이 왜 탈북을 결정했는지, 배가 고파서 왔든지 혹은 가족 때문이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왔든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그들이 주님을 알든 모르든 주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탈북을 하게 되었고 남한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 이 시대의 새터민들은 누구인가?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들은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하고, 통찰하고 있는 자들이다. 특히 새터민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다음 세대를 짊어질 동량들이다. '그 나라를 보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아라' 라는 말이 청소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굳이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청소년들은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고 창조를 이뤄내는 진취적인 사람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터민청소년은 새터민의 특성과 청소년의 특성을 갖춘 자들이다. 그들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했다. 그들은 생각이 밝고 변화가 빠르다. 순수하게 잘 훈련되었다는 장점을 지녔다. 창조적인 그들은 통일 시대의 남한과 북한을 이어줄 중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인물들의(모세, 다윗, 바울 등) 공통점은 쓰임을 받기 전에 어김없이 광야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런 훈련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들이었고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터민청소년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아픔, 남들이 겪지 않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소중하게 쓰실 것이다. 남이 겪지 못한 아픔, 상처, 고난을 겪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을 때, 이른 바 '상처 입은 치유자'로써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더 잘 공감할 수 있다. 남들이 겪지 못한 경험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자 선물이다. 그들의 상처보다 큰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주실 것이고 통일의 주역으로, 남한과 북한의 중재자로, 고난과 어두움 아래 신음하고 있는 열방의 수 많은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할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새터민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중국에서 가졌던 순수한 신앙을 남한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선을 넘어 이 땅에 왔건만 남한교육제도와 문화의 사선은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지닌 고난과 훈련의 값진 의미에 대해 격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복음적 부르심에 반응하여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보고를 통해 발견되거나 와닿게 될 그러한 현실적 필요에 대해 반응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Ⅲ_본론

"새터민 청소년들은 지금 어떠한 특성을 지녔으며 그 특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 " 새터민 청소년들을 향한 노력은 무엇이며 그 노력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1.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

(1) 북한에서의 생활

"북한 주민을 이해하는 것이 탈북동포를 잘 도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제8회 탈북동포돕기 자원봉사자 수련회에서)

새터민청소년들이 북한에 있을 때 갖게 된 생활 습관이나 특정 부분에서 굳어진 사고 방식은 남한사회에서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북한에서의 일상생활

남한사회의 청소년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면 그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하려는 경향이 짙다. 그에 반해서 북한의 청소년들은 철저한 감시와 통제 하에서 조직화, 집단화된 생활을 해야 하며 자신의 욕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직 당과 수령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북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북한체제가 요구하는 이른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지기 위한 엄격한 규격화, 획일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2]

북한에서의 청소년 가정교육실태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하여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나누거나 가내 교육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 때문에 가정 내에 도덕성, 인격성 등의 자식의 미래와 성장에 관한 교육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한 '결전장' 참가 즉, 산에 풀을 뜯으러 다니거나, 식량구입, 직장출근, 시장출근 등의 고되고 힘든 시간으로 너무너무 지쳐 있으며, 평생 문화시간이나 오락시간을 전혀 가져 보지 못하기도 한다. 빡빡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봉건노예사회에서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가정교육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짐작하면 된다.[3]

---

[2] 강경미, '통일을 대비한 북한청소년의 복음화와 기독교 상담전략'
[3] 함경북도 온성에서 온 새터민의 증언

탈북자들은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며 신경질적일 수 있다. 탈북자들이 이러한 성격을 갖게 된 것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감정의 갈등으로 발전되고 성경적 갈등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북한 당국이 어릴 적의 탁아소 생활에서부터 늘 자기 비판과 아울러 남을 비판하는 '생활총화'를 실시하게 하여 서로를 불신하고 감시하는 생활을 늘 해왔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공적생활에서는 공식규범에 순종하지만 개인적인 일에서는 전혀 다른 자기방식의 도덕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인들은 억압적인 체체로부터의 정치적 처벌을 피하면서 개인주의적 이익을 실현하려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공적인 세계에서는 공적 원칙을 따르지만 사적인 세계에서는 개인주의를 지향하며, 공적 세계에서는 복종하지만 사적 세계에서는 비판하는 이른바 '면종복배'인 것이다.[4]

북한의 가정은 남아출산을 선호하고 아들이 딸보다 더 우대받는 등 남성위주의 사고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남성의 권위가 강한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난다. 청소년 자신의 장래는 집안의 출신성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출신성분에 대해 민감하다. 출신성분이 낮을 때는 고민도 많고 불만도 많이 생긴다.[5]

새터민청소년들은 북한체제에서 어린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배운 대로 북한체제의 우월감과 남한사회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새터민청소년들이 북한에서 살아가며 다른 세계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데 기인한다. 어떤 새터민청소년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태양절에 하늘에 태양이 처음 생긴 것으로 알았다면서 외부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던 북한시절을 회상하며 어이없어 하기도 하였다.[6]

탈북한 십대 소녀 박은영은 "남한에 와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남의 눈치 안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북한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밖에 나갈 때 "입 조심해라" 라고 말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북한사회가 얼마나 통제와 감시의 사회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7]

2) 북한에서의 학교생활

북한의 청소년들은 인민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4] 조용관김병로, '북한 걸음 다가서기' 144p
[5]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301p
[6] 박윤숙 제8회 탈북동포돕기 자원봉사자수련회 강의안
[7] 북한 한걸음 다가서기 121p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조직과 집단 속에서 활동한다. 그들의 하루일과는 집단등교로 시작되어 집단독보회, 집단생활총화, 집단하교, 그리고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단체 활동 참석으로 이어지며, 학교생활 중에는 소년단, 사회주의 청년동맹, 붉은 청년 근위대, 교도대 등의 조직에 편성되어 엄격한 정치사상 및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노동'으로 각종 노력동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8]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다원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온 반면에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전체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새터민청소년들이 북한에서 학습한 내용과 전혀 다른 교육과정을 지닌 남한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라 할 수 있다. [9] 북한은 조직적인 사상교육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공식 통치이념으로 규정하고 주체철학,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의 사상체계를 발전시켜 이를 학습하는 조직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일체제가 공식화된 이후, 대외 관계 개선 및 남한과의 교류 활성화에 따른 외부문화유입을 막기 위해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10]

학생들의 정신상태는 먹지 못하고 헐벗어서 마음의 슬픔과 비관을 가지고 학교규율과 교육에 시달리느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방식보다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학교교육에서 어떤 억압을 받고 있을까? 이 시기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지향과 열정, 미래에 대한 성공의 꿈 등으로 가슴이 부풀고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체력적으로도 급격히 성장하고 자랄 나이이지만, 북한에서는 사회의 체제유지와 이념을 지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들을 그들에게 부과하며 노동력까지 착취하고 있다.

3) 북한에서의 종교생활

북한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종교는 아편과 같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는 무지하여 신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또 새터민청소년을 포함한 일반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약 40%가 세뇌된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부탈북자는 주체사상이 남한사회 정착에 도움을 준다고 진술하고, 김일성, 김정일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주체사상이 거의 신앙과도 같이 그들 내면에 자리잡고

[8] 강경미

[9] 북한 한걸음 다가서기 142p

[10] 김병로 제8회 탈북동포돕기 자원봉사자수련회 강의안

있음을 보여준다.[11]

북한은 50여년의 긴 세월동안 모든 종교는 미신이고 제국주의의 도구라고 세뇌교육을 해 왔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의 미신행위는 모든 종교를 미신이라고 비판하여 강력한 반종교 정책을 실시해온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청소년 계층에까지 미치면서 부적이나 점치기 외에 주패(트럼프)를 통한 신수보기로 운수나 미신행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12]

김정일 "종교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북한의 종교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종교적 심성은 인간본성의 일부로 표출되고 있다. 종교적 심성에는 특히 유교적, 기독교적, 무속신앙적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있다. 특히 무속신앙이 성하여 북한주민들은 물을 떠놓고 빌거나 손금을 보고 점을 친다. 종교 없이 살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종교적 욕구는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13]

4) 북한에서의 의식구조, 가치관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신화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김일성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서 조선을 해방시켰다는 '해방'신화. 둘째, 북한이 1950년 6년 25일 북침한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승리'신화. 셋째, 북한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였다는 '낙원'신화. 넷째,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불쌍한 남조선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통일'신화. 물론 이 네 가지 사조는 김일성 사후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그 효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화들은 북한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14]

북한의 문예작품에 나온 청소년들의 특성은 집단주의, 일원론적 절대주의, 배타적 자국가 중심주의 등의 가치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며,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해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에 대해 헌신하는 이상적이고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 청소년들의 인성적 특성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5]

---

[11] 조기연 "북한선교' 『선교타임즈』(2002 4월), 68
[12] 강경미
[13]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304p
[14] 한화룡 '북한이 보인다' 29p
[15] 강경미

- 기초적인 생활태도의 형성
- 김일성 부자 우상화 교육과 충성심 배양
- 권위주의 사회의 수동성과 타율성
- 전통사회의 온정주의

북한 청소년들은 개인적 의식보다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면서 경쟁보다는 협조와 희생, 또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평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외국문화에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관과 민족관이 약한 것에 반해서 북한청소년들은 폐쇄적이고 주체사상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주체성과 민족성이 매우 강한 편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개방, 동구권의 사회주의 붕괴로 인해 청소년들의 이러한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가치관들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6] 청소년 일탈행위의 문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전체범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50%이상이 22-25세의 청소년이다. 청소년들은 주로 역주변이나 장마당을 중심으로 배회하면서 소매치기, 빈집털이 등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북한 청소년들의 사회일탈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사회통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권층에 대한 불만과 집단주의 사상이 약화되면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회일탈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17]

⑵ 제 3국 체류 과정

1) 생존 위주의 생활과 정체성 혼돈의 기간

① 은둔, 도피생활

두만강, 압록강 도강 후 중국 동북부 지역 내 산간지대를 지나 도심으로 진입한 데 성공한 탈북동포들 중 사역자들이 돌보고 있는 이들은 1~2명씩 나누어져서 시골 혹은 도심의 민가에 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하 10~30도에 이르는 혹한에도 난방조차 쉽지 않는 등 이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항상 감시의 위협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나 발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견딜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고, 어떤 이들은 해가 지면 집안에 일체의 전등을 켜지 않아

[16] 강경미
[17] 강경미

빈 집처럼 보이게 한다고 한다. [18]

② **정체성 상실**

지속되는 생존위주의 삶,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생활, 변화가 없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등,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고, 찾고 상담할 만한 심적 여유나 정보, 안내자는 없다.

2) 장기간 학습 공백 상태

탈북 후 중국에서의 은신, 도피기간은 평균 3년 6개월 정도라고 한다. 북한에 있을 때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가 허다한데 재중기간은 새터민청소년이 공부를 완전히 놓게 되는 기간이다. 경우에 따라 중국어와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이 기간은 한창 배움의 때를 보내야 할 새터민청소년에게 있어서 기초적인 학문소양의 후퇴기이며 다음 학습단계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를 만드는 기간이다.

3) 제한된 제3국에서의 삶

중국과 동남아시아 내에서 교회를 통해 사역자를 만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은신하고 있는 새터민청소년은 공통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제한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쉘터(shelter)나 은신처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영양공급을 받으며 극히 제한된 만남을 가지면서 반복되고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 받는다. 대다수의 새터민청소년들이 이런 환경에서 몇 년간 지내고 난 후 남한으로 오게 된다.

4) 겪게 되는 아픔들

경우에 따라 탈북한 청소년들은 인신매매조직을 통해 팔려 다니며 강제결혼, 강제노동, 성폭력을 겪기도 한다. 중국은 UN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북한과의 밀약을 통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 의해 체포된 경우 무조건 북한으로 송환되는데 이 경우에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크다. 일가족이 함께 도강한 경우 탈북과정에서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도피기간에 가족 중 일부가 북송되거나 잃어버리는 등 가슴 아픈 생이별을 겪기도 한다. 이 경우, 새터민청소년들은 사람과 사회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마음 가득히 증오와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남한으로 오게 된다.

[18] NKFR 1기| 보고, CAAS 소식지(4호)

⑶ 남한사회로 편입되기까지의 과정

새터민청소년들은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성장시기의 과도기를 겪으며 심리적, 정서적 혼란을 극복해야 함과 동시에, 남한사회의 문화적 충격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즉 새터민청소년들은 학업, 문화, 경제, 사회적 관계망 등에서 새로운 남한사회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체념과 불만으로 주변환경과 분리되어 살면서 남한사회 내에 북한 사회라고 하는 이중적 사회구조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하겠다.[19]

1) 합동조사기관에서의 약 1달간 조사

탈북자들은 남한으로 오게 되면 대성공사라는 합동조사기관에서 1달 정도 조사를 받게 된다. 대성공사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정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등 5개 기관의 합동심문 시설로 군이 관장하며 시설이 낡고 비좁은 데다가 증가하는 탈북자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에 수용된 탈북자들의 경우 그 동안 북한 정보자료와 일생기록을 쓰라고 요구 받는 등 인권침해시비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곳을 거쳐야 하나원으로 수용된다.

2) 하나원(하나둘학교)에서의 12주 사회적응교육

합동조사기관에서의 조사 후 하나원으로 가서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은 탈북한 이주민들이 남한사회에 편입되기에 앞서 잠시동안 보호하고 남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가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통일부가 담당하는 곳으로 시설이 대단히 좋고 교육의 질이 좋아 난민을 수용하는 곳 중 좋은 모델이라고 한다.[20] 청소년들은 하나원에서 운영하는 '하나둘학교'를 거치고 주말에는 시민단체가 하는 교육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일반학교 편입,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준비,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①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새터민청소년의 남한입국을 도와주던 중 언젠가 제 3국에서 만난 5명의 새터민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남한사회에 가면 주님 앞에서 멋지게 그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남한에서 그들을 다시 음식점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검정고시학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노하여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청소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19]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용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298p

[20] 한동대학교국제법률대학원(HILS) 원재천 교수

노력했다고…. 고등학생 나이를 가진 한 친구는 대성공사에서 학력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나 어이없고 부끄러웠지만 남한사회에서 차근차근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초등학교6학년에 편입하여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수업을 못 알아듣겠더랍니다. 친구는 없고 수업시간은 답답하기만 하고 해서 하다못해 자퇴하여 검정고시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두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붙잡고 엉엉 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21]

②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시스템의 문제!"**

"무연고 새터민청소년들은 중국에서 긴 시간 동안 숨어 있다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동안 교육시스템과 멀어져 있다보니 한국에 들어와도 쉽게 한국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 따라오는 아이들만 지도할 뿐 처지는 아이들은 무식하게 밀어내는 시스템이라 탈북 아이들이 상급학교로 올라오기는 힘들다. 결국 생활을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주로 주유소나 배달, 노래방 등의 일을 한다고 한다."[22]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교육행정 때문에 초등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게 된 19세 청년이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이는 19세이지만 체격은 남한의 초등학생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았을 때 그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남한의 경쟁적인 사회체제와 거대한 미디어의 홍수, 남한사회의 일시적, 쾌락지향적, 성공지향적 문화와 인간관계, 정부의 기계적 행정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은 점점 지쳐가고 황폐화되고 있다.

2. 새터민청소년의 특성

(1) 일반적인 특성

1) 심리적 불안정

① 탈북 과정에서의 공포: 험난한 탈북 과정 가운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거나 힘든 방황의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탈북 과정에서의 공포는

[21] 한꿈학교 김성원 목사 인터뷰

[22] '배낭을 맨 소년' 감독 정지우 인터뷰 (2003년 11월)

아직도 마음 속의 상처로 남아 있다.

② 정체성 혼란: 탈북 과정 속에서는 정체성을 고민할 겨를 조차 없었고, 남한에 와서는 자신이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어떤 것이 자신의 정체성인지를 혼란스러워한다. 무작정 남한사람처럼 되려고 한다거나 아예 폐쇄적인 자세로 방황한다. 그러나 그 중에도 많은 새터민청소년들이 정착 과정 속에서 남북을 경계로 나누지 않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

③ 앞으로 생활에 대한 두려움: 북한 말투에 대한 고민 등과 함께 소수자 및 약자에게 먼저 손 내밀기를 꺼리는 남한 사회에서 자신이 기존의 다수, 주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2) 또래집단에서의 소외

남한 또래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소통하기 어려워한다. 하나원에서 퇴소 후 바로 일반학교로 편입할 경우에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특히 학력차로 인해 자신의 나이 또래보다 아래의 일반학교로 편입하게 되면 이러한 소외감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이유를 포함, 남한 또래 친구들을 만날 여건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남한의 또래와 어울리려고 하기 보다는 같은 새터민 친구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3) 학습격차로 인한 자신감 상실

북한과 남한의 학제 차이와 중국 및 제 3국에 체류로 인해 발생한 장기간의 학습 공백으로 인해 일반학교에서 공부할 경우 따라가지 못 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새터민청소년들의 일반학교 중도 탈락률과 부적응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상이한 교육과정 및 배경지식, 잦은 외래어 사용으로 인해 수업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학생들이 많다.

남한 사회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나 수학 등에 있어 특히 기초가 턱없이 부족하다.

4) 공격성

생활총화 등 공격적 환경을 통해 학습하게 된 결과로써 공격성을 표출하기도 한다. 험한 탈북 과정과 중국에서의 오랜 고생으로 인한 피해의식과 좌절감 때문에 갑자기 감정 폭발을 일으키기도 한다.

5) 공중도덕 의식 약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며 자기중심적이다.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6) 경제적 개념의 부재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돈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정착금으로 지원된 돈으로 값비싼 물건이나 핸드폰을 구매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정착금을 일시불로 지원하지 않고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7) 가정문제 및 기타

북한의 가부장적인 체계에서 습득된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
남성 우월의식 및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문제도 있다.

그렇지만 남한의 여느 청소년들과 유사한 점도 많다. 우리가 하늘꿈학교, 한꿈학교, 하나원에서 만났던 청소년들 또한 밝고 명랑한 여타 청소년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 또래에 할 법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주문화인 인터넷, 핸드폰, 축구, 대중가수, TV프로그램 등을 선호하면서 그들의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특성들은 단지 적응해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과도적 특성일 뿐이지 결코 그들을 차별화할 만한 특성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단정적으로 그들의 적응여부를 판가름 짓거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된다.

⑵ 구조적인 특성

1) 제 3국 체류 여부에 따른 특성

① 제 3국에 오랫동안 체류한 경우

새터민청소년들의 제 3국 체류 기간은 평균 3년 6개월 정도이고 주요 체류국으로는 중국, 몽골, 태국, 라오스, 베트남, 러시아 등이 있다. 주로 중국에 많이 체류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도처에 은신하고 있다. 이 곳은 많은 수의 조선족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거리에는 한국 식당, 한국 연예인 사진이 있고 한국의 가요, 한국 TV 프로그램, 한국 영화 등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탈북한 청소년들은 이 곳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게 되고, 오랫동안 체류할 경우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되어 자연스레 한국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한국에 입국해도 상대적으로 문화적 충격이

적다. 청소년이라는 특성 또한 더 빨리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 자본주의의 일부분을 접했기 때문에 완충적인 작용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경제관과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제3국에서 방랑생활을 오래 한 새터민청소년들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사회를 향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 마음 문을 잘 열지 못 하고, 한국에 와서도 집 안에서 TV나 인터넷에만 의존하는 등 폐쇄적인 생활을 하기도 한다.

② **탈북 후 중국에 오래 체류하지 않고 바로 입국한 경우**

이들은 여전히 북한에서 했던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즉 북한체제에서 얻은 방식 대로 생각한다. 금방 바뀌는 것이 이상할뿐더러 금방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특히 남한 사람이 김일성을 비방하는 말이나 그들을 높이지 않았을 경우 그렇게 언급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에서 배운 사상가를 부르며 짙은 향수를 느끼기도 한다.

2) **연고/무연고에 따른 특성**

① **가족과 함께 사는 새터민청소년들**

청소년기를 힘들게 겪긴 했지만 이들을 받아주고 감싸줄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다 보니 남한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② **혼자 살고 있는 새터민청소년들**

이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청소년기를 힘들게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챙겨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한다. 자신을 받아줄 공동체가 있거나 대안학교를 다니는 겨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황을 하고 집안이나 PC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거나 음주가무나 오토바이는 폭주에 가담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③ **연령에 따른 특성**

탈북 시 연령에 있어, 저연령의 경우에는 보다 빠른 속도로 잘 적응할 수 있지만, 고연령일수록 적응 속도가 더디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청소년기 이전에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새터민 청소년 중에는 현재 학업을 잘 마치고, 사회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입국한 새터민 청소년 중에는 아무래도 학업과 문화 적응의 측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들이 많다.

3. 새터민청소년의 국내 상황,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

(1) 지성[23]

1) 정치

① 상이한 정치 체제상의 차이점에 따른 혼란을 겪는다
② 사상적으로 부적응하는 계층이 있다.
③ 북한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과 동경이 여전히 남아있다.
④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다.

2) 경제

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② 정착금의 효율적 관리능력이 부족하다.
③ 남한사회는 돈만 있으면 뭐든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3) 교육

① 학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② 특히 영어, 수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③ 공부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지 못하고 있다.
④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답답해 한다.
⑤ 검정고시 위주의 학업으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영어나 글쓰기, 표현력에 어려움을 겪는다.
⑥ 높은 학업 중도포기율을 보이고 있으며,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높은 자퇴율을 보인다. 2006년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새터민 대학생들의 자퇴비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종교

① 탈북 후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는 선교사, 현장 사역자들의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넘어오지만 한국에 와서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종교는 있지만 신앙이 사라져 가는 경향이 있다.

[23] 지성(知性) : 사물을 알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감정과 의지에 대하여, 모든 지적 작용에 관한 능력을 이르는 말.

(2) 인성

인성의 형성은 어떠한 사회 환경과 교육을 받고 성장하였느냐가 주요인이 된다. 50여 간 대를 거쳐 북한식 사회체계에서 살아 온 이들의 인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서구사회의 교육학자나 사회 심리학자들이 공산주의 및 독재주의 체제 아래에서 생활한 이들의 인성 문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와 탈북자들의 북한에서의 생활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들 수 있다.

1) 장점

① 성정이 순진하고 감상적이다.
② 사고가 단순하고 직선적이다.
③ 체력적으로 지구력이 좋다.
④ 전체(공동체) 지향이 강하다.
⑤ 강한 생존 본능과 승부근성을 지니고 있다.

2) 단점

① 게으르고 무능력하다.
② 비창조적이고, 비자발적인 성향이 강하다.
③ 준법정신과 시민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④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과 대비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특성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개인적으로 자립하는 데는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특별한 대책 없이 그대로 방임될 경우 소외감, 무력감, 상대적 자괴감 등의 영향으로 우울, 자폐증상에 시달리다 음주, 도박, 성, 약물 등의 유혹에 빠져 쉽게 폐인화될 수 있다고 한다.[24]

많은 전문가들과 담당자들이 새터민들이 어떤 규범적인 측면과 인간관계 측면에서 의식구조가 남한주민들과 많이 다르다. 지역주민으로서 사회와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이런 측면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판단하게 된다. 성장배경과 형성된 의식구조에 차이가 있기에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꼭 소수가 다수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듬어지고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안내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24] 김종대, '남북통일과 북한선교(탈북자 중심으로 보는 북한선교 방안)'

⑶ 영성

대개 북한에서는 강한 세뇌교육으로 인해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그러나 탈북과정에서 교회와 선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남한으로 들어오면 거부감은 어느 정도 사라진다. 그러나 일부 새터민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내 사역자들이 탈북자에게 반강제적으로 믿음을 강요하거나, 성경읽기와 쓰기를 생존의 수단으로 이용한 점 등의 안타까운 점들이 보고 되기도 한다.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탈북과정에서 중국과 한국, 미국, 캐나다 등의 교회에 의해 도움을 입었지만 그들은 대개 남한에서 신앙생활을 재개 하지 않거나 교회를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기독교가 형식적인 생계유지나 호구지책 수준일 수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가하면 중국에서 도움 받았던 것을 생각해서 의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 어려운 시절, 교회나 선교사의 도움으로 은신해 지낼 때는 도피처로 신앙을 받아들였어도 남한으로 와 급격한 자유를 경험하고는 믿음을 많이 져 버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청소년의 경우 복음에 대한 수용성은 훨씬 높고 남한에서의 삶에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좋아서 영성 차원에서의 적응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만났던 청소년들의 경우 기독교는 인정하지만 술 등의 생활교리와 실천적인 삶의 측면에서 고민이 있었다. 이 부분은 젊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지만은 새터민청소년은 북한에 있을 때 아주 엄격한 생활과 상명하복의 비인격적인 학창시절을 보냈기에 좀 더 선뜻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5]

영적인 부분에서 새터민들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본 몇가지는 다음과 같다.

- 북한 환경의 경직함에 따라 마음문이 닫혀있다.
- 전도자에게 경계심을 품고 있다.
- 자만, 혹은 자멸감에 빠져있다.
- 신앙생활의 전환에 따르는 어떤 재앙에 대한 불안의식이 있다.
- 자기의 편견으로 기독교를 이해한다.
- 신자는 완벽한 성자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상대적 실망감이 클 수 있는 등 부담감이 있다.
- 형식적인 믿음 생활 하기보다는 마음 편하게 생활 희망한다.[26]

[25] 김종대
[26] 김종대

종교생활에 대한 심리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꼽을 수 있다.
한번 결연된 후원자에 대한 절대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개념 없이 자신의 판단에 의한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결연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심을 고양하기 위한 관심이나 노력을 하기 보다는 물질적 혜택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다. 북한의 경직된 사회의 인간관계의 습관이 남한사회에서도 올바른 인간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며 특히 개인주의적이고 봉사나 공동생활능력이 부족하다.

기독교의 교리와 종교활동이 북한의 체제와 너무 비슷하다.[27] 이는 익숙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이 큰 경우에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표-1〉 기독교와 북한체계 유사점 비교

기독교	북한체제
성경책	김일성혁명역사책
십계명	당 유일사상 10대강령
헌금, 십일조	당비, 맹비
주일예배	매주 연구실 학습
전도자	3대 혁명소조 역할
가정전도방문	5호 담당제 역할
기도모임	생활총화
설교자의 말씀인용	연설자의 김일성 어록 암송 및 인용
십자가	수령의 초상화

(4) 생활

1) 경제적 측면

① 생활 능력

다수의 새터민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과 진학을 희망한다. 게다가 한국이 자본주의 체제이다 보니 이런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한 부담감을 안고 공부를 한다. 최초의 그런 동기에서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대학을 다닌다. 독거 새터민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생활능력마저 없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기초수급생활대상자로 인정하여 현행 매달 3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생활(주거비를 제외한 식비, 교통비 등 포함)을 하고, 공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7] 김종대

② **재정 관리 능력**

새터민청소년뿐만 아니라 새터민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매우 낯설어한다.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르고 전혀 새로운 경제체제에 편입된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화폐가치 및 단위에 대한 당혹감과 소비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구조 및 원리에 무지한 이들은 본의 아니게 사치, 허영에 물들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매스컴에서 본 편리하고 보기 좋은 것 등이 고가품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

2) 사회, 문화적 측면

① **사회적 측면**

가치관의 차이로 남한 청소년들과의 대화나 토론의 자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언어의 이질성에서 오는 용어 및 개념의 표현적 차이에서 초래된 것과 북한 말씨의 어색함, 독특한 억양, 생소한 표현 등이 인간관계 형성과정에서 오해를 일으키거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탈북자라는 사실이 노출되어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탈북자에 대한 편견으로는 북한 정치체계 또는 그 지도부와 동일시 하여 적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념적 편향성이 일부 자리잡고 있다. 북한사회의 부적응자, 낙오자, 탈북 할 수 밖에 없는 그 사회의 범법자로 인식하는 편견이 있다. 끝으로 남한 청소년들의 학업제일주의 사고 및 행태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성적과 관련해 민감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② **문화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청소년 문화 적응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놀이문화를 통한 적응 문제와 언어 적응의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반응은 양면성을 보인다. 남한 청소년들의 문화 중에서 가장 호감이 가고 비교적 적응이 용이한 것으로 놀이문화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놀이문화를 남한 청소년들과 쉽게 어울리거나 사귈 수 있는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놀이문화는 초기단계에서,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과 같이 그 조작능력이 미흡할 경우 적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남한 사회 내에서의 정착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 방법을 습득한 경우에는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정서적 측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대체로 제 3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지냈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는 불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사춘기 시절 심리적 불안 요인을 가지고 지내서 정체성의 혼란, 두려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못 믿고 자신과 처지가 같은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는 남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 그들은 남한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은 나의 아픔을 모르고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또한 '저들은 뭐가 잘났길래 남한 땅에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등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나이는 같은데 지식이나 신체적인 면에서 남한 사람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한가지 특징적 양상은 남한에 와서도 교회의 지속적인 돌봄과 교제 가운데 지내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남한 사람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보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남한주민의 새터민청소년에 대한 이해 양상

(1) 지식적인 면

남한주민들의 대다수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탈북자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들을 부르는 공식 명칭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에 왔는지, 아무도 없는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재외 탈북자 및 새터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듣거나 교육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2) 관계적인 면

새터민을 돌보는 면에 있어서 새터민들과의 교제와 만남이 지속적이지 못 하다. 이것은 새터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준비하고 적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신뢰감 있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남한주민들은 처음에는 북한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순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그들의 말이 거짓말로 밝혀 질 경우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몇 번하고 나면 탈북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그것을 거짓말로 여기지 말고 이해해주어야 한다. 그들의 상황과

사고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28] 만남 초기에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거짓말로 보지 말고 적극적인 자기 방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29]

⑶ 의식적인 면

새터민 그리고 새터민청소년들에게 무관심하고 배려없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 그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식하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를 떠나는 새터민청소년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한 존재, 배고픈 존재, 연약한 존재로만 부각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 위에 있고 그들보다 낫고, 괜찮다는 교만 섞인 편견일 수 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를 것 없는 가치 있는 하나의 개인이다.

사상적으로 대적할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정치적인 선입견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도 한다.그들과의 문화적, 가치관적 차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우리 문화를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 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

⑷ 기독교적인 면

재외 탈북자 및 새터민들에 대한 복음적 중요성을 깨닫지 못 하거나, 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새터민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들에 대한 친근한 이해 없이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새터민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 지원이 전부가 아니며, 그들에게 생명,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나눠주기를 거리지 않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제생활에서 실천하지 못 한다.

5. 새터민청소년 지원 현황

⑴ 정부

1) 정책개요

① **정책방향 : 총체적 생활 지원.**

- 대량 탈북이 시작되던 10여년 전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② **정착지원 내용 : 정착금(기본금,장려금,가산금), 주거(주택알선,주거지원금),**

[28]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이영석 간사

[29] 무지개청소년센터 윤상석 행정기획팀장과 인터뷰

취업(직업훈련, 고용지원금, 취업보호제, 취업보호담당관), 사회복지(생계급여, 의료보호), 교육(대학 특례 입학, 등록금 지원), 정착도우미, 자격인증 등

③ **자립형(정착금 관련 경제적 지원)**

- 과거에는 일시불로 목돈을 지급했으나 다수의 탈북자들이 받은 돈을 단기간에 소비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서 수십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과거 대비 전체 지원금액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 '기본금'과 취업을 유도하는 '장려금'과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취약층(노령자, 중증장애자, 편부모아동보호세대)에 지급하는 '가산금'이 상향조정 되었다.

④ **맞춤형(사회적응 교육, 취업, 취학 지원 추진)**

- 사회적응교육(취업, 취학 연계, 현장체험, 준법교육 등)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되었다.
- 한겨레 중고등학교와 같은 새터민청소년 특성화 학교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학습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탈북자들을 위해 독자적인 분반을 운영하고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 확대**

- '거주지 정착도우미제도' 실시 : 새터민이 거주지 정착초기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서 새터민 1세대 당 2명의 민간자원봉사 정착도우미가 나서서, 하나원 수료 후 1년간 지역사회 안내 및 각종 고충상담 등의 역할 수행한다.
- 지역협의회 활동 강화: 지역 내 보호담당관, 지역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 새터민 정착에 필요한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등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상담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새터민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16개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민간 단체의 역할 강화 : 북한이탈주민(법률용어)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 단체들이 새터민 사회적응 지원사업 및 상담역할을 담당한다.
- 하나원(하나둘학교) : 탈북자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통일부 소속 교육 기관으로 단기간이나마 눈높이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장점이다.

2) **하나원**

① **설립연도:** 1998년 7월 8일

② **소 재 지 :** 경기 안성시 삼죽면

③ **설립목적:**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

④ **정식명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⑤ **설립과정:** 199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10명 안팎이던 귀순자가 1994년부터 40~80명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 약 121억 원의 예산으로 1997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1998년 5월에 완공하였다.

⑥ **규모**

- 본원

  부지 20,300평, 연건평 약 3,459평에 본관, 교육관, 생활관2동 건물로 300여 명이 동시에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분원

  부지 21,669평, 연건평 약 917평 임차건물로 본관, 별관으로 구성되어 100여 명이 동시에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공통된 편의시설

  하나의원, 컴퓨터실, 종교실, 강의실 등이 있다.

⑦ **업무**

- 이 곳에서는 관계 기관의 합동심문이 끝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충 등에 관한 각종 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해 심리적 · 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 6~8개월간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⑧ **교육**

- 교육목표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돕고 그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

- 교과편성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교육, 우리 사회의 이해 및 문화, 충격 해소,

진로 지도 및 직업 기초능력 훈련 등

- 초기 정착 지원

⑨ **의료지원체계**

- 협력병원 ---- 하나의원 ---- 자원봉사 의료진
  |
  내과 치과 한방과 산부인과(추진중) 정신과(추진중)

⑩ **정착지원**

- 정착금 지급, 취적 및 주거지원, 취업지원, 사회복지, 교육, 보호담당관 및 도우미 지정운영을 하고 있다.

3) 한겨레 중고등학교

① **개교일자**

- 2006년 3월 1일 개교 및 입학식

② **소재지**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10-1
- 교육목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생활한자나 생활영어 등을 익히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을 키워내고 '칭찬왕 토큰(token)제',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특색있는 교육을 하며 정서안정과 기초기본학력의 신장에 교육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 목표별 주요 시책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향상과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민주인'으로 기초질서의 생활화, 공동체 의식함양, 토의, 토론의 생활화, '협동인'으로 경로효친의 생활화, 우리문화 새로운 발견, 봉사협동 활동강화, '창의인'으로 기본학력 신장, 정보교육 내실화, 세계화 대비 교육, '자주인'으로 특기적성 교육의 신장, 자율행동의 실천, 진로, 상담지도의 강화, '건강인'으로 기초체력단련, 보건위생 생활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한다.
- 교육목표
  가. 기초질서의 생활화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민주인)
  나. 바른 인성 함양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협동인)
  다. 정보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사람(창의인)
  라.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여 자기 생활을 개척하는 사람(자주인)
  마. 기초 체력을 신장하여 심신이 조화로운 사람(건강인)

4) 장점 및 문제점과 한계

① **장점**

- **정부**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두고 고심 중에 있지만 같은 민족적인 입장을 차치하고 동등한 UN회원국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정착금 지급, 취적 및 주거지원, 취업지원, 사회복지, 교육, 보호담당관 및 도우미 지정운영 등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중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난민 수용방법에 대한 좋은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 **하나원**

  입소 때부터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남한 사회로 나갈 때 적응을 위해서 적십자의료봉사, 교육봉사 등의 자원봉사자들과 연계시켜준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업부분에서 남한 학생들보다 많이 뒤떨어져있는 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력인정을 보장해 주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② **아쉬운 점**

- **정부**

  언제까지 탈북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탈북자들을 모두 수용한다고 할 때 지속적인 경제 지원을 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대북정책 및 인식에 있어서 정치적인 요인도 변수가 되고 있다.

- **하나원**

  현재 하나원에 상주하는 의료진으로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의료인 의료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 **한겨레 중고등학교**

  현재 월불교와 합작해서 건립되었다.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최초의 전문 공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기독교단체가 정부와 합작해서 이러한 기회를 얻고, 복음이 전해질 여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어쩌면 새터민청소년들에게 남한 친구들을 사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가두어 두는 결과를 초래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이나 인간관계형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2) 민간기관

1) **대안학교** : 새터민 청소년들이 탈북 과정 중에 겪는 문화적 이질감과 정체성의 혼란 등의 어려움에 더하여 특히 탈북 이후 국내 입국까지의 엄청난 학습공백으로 인한 학력부적응 문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날로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써 대안학교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기독교적 마인드로써 이들을 섬기는 손길은 더욱 더 필요한 실정이다.

① **하늘꿈학교**

- 소개

  하늘꿈학교는 2003년 3월에 개교한 한국 최초의 새터민청소년 대안학교로 현재 천안과 서울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차세대의 북한 선교를 담당할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천안에서는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중입, 고입 검정고시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으며 서울은 20세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주로 대입 검정고시와 대입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 하늘꿈학교(서울 송파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현황

  구성

  21명의 학생과 3-4명의 학교의 전반적인 임무를 돌보는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는 모두 자원봉사자다.

  점심식사 급식을 섬기는 자원봉사자가 있다.

  활용시설

  도서관, 컴퓨터실이 따로 있고 교실을 자습실 및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다.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목회자연장교육원에 있는 공간을 각종 수업을 위한 교실로 활용한다.

  재정적지원

  일체가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수업

  학생들마다 수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룹을 나누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

  검정고시반: 국어, 영어, 과학, 사회, 국사, 음악, 미술, 독서지도

  대학진학반: 논술(Ⅰ, Ⅱ), 영어(Ⅰ, Ⅱ), 수학(Ⅰ, Ⅱ),

독서지도

특성화수업: 명사특강, 심리상담, 1:1 개인지도(피아노, 기타 등),

매주 한번씩 채플(예배)

사회적응 프로그램

역사문화탐방, 지역탐방, 해외어학연수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NKFR팀이 2006년 여름, 이곳에 방문했을 당시, 이러한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대안학교 9곳이 연합하여 기획한 '문화 기행 여행', 예수원에서 진행하는 '노동학교' 등에 참여하려 하고자 했다. 또한 피지와 같은 제3국에 나가 해외어학연수를 받았다는 졸업생도 만나 볼 수 있었다.

기숙형 학교

2-3명의 통학하는 학생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기숙사에 산다. 기숙은 학교에서 얻어 준 근처 임대아파트에서 하는데 남자 숙소 2곳, 여자 숙소 2곳이 있다. 한 집에 5-6명 정도가 함께 살고 있다.

기본적인 규범 교육

학교 상황에 따라 진행한다. 예를 들어 휴지를 너무 낭비하면서 쓰면 자기 휴지를 사서 아껴 쓰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점심식사 이후 같이 청소를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기본적인 규범을 배운다.

영적인 돌봄

조회시간에 사역자가 짧게 말씀을 전한다.

채플(예배): 매주 한번, 화요일

기도회: 금요일 밤 9시에 감사기도회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말씀양육: 소모임을 나누어 매주 한번 소그룹 성경공부를 한다.

② **한꿈학교**

- 소개

한꿈이라는 뜻은 'The Great Vision'을 의미한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학교라는 뜻으로 2004년 6월 7일에 개교했다. 한꿈학교는 탈북한 청소년들이 남한에 와서 처음에 가진 꿈과 비전들을 잃어버리고,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문제에 급급해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돌보아줄 곳이 없어 교회에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결국 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장차 통일 한국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새터민청소년들을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해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한꿈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현황

구성

15-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고 목사님을 비롯 4-5명의 교사가 있다.

활용시설

건물 내의 지하 공간을 교실과 컴퓨터실로 사용하고, 임대 받은 공간을 자습실 및 식당으로 활용한다.

재정적 지원

① 한꿈학교는 경기도 남양주시 한민족 세계선교원 시내산기도원 내의 임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② 전체 운영은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며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한다.

공동체 지향 지원

한꿈학교가 특별히 공동체로 분류하고 지원하는 목적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는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대안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정고시 공부는 사회적응을 위한 한 과정일 뿐 공동체를 통한 배움은 인격을 성숙하게 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예배 공동체 :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 받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더욱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는 영성을 위한 공동체이다.

① 매일 아침 QT를 같이 한다.

② 수요채플과 금요기도회: 시내산기도원 '전원교회'의 예배를 드린다.

학습 공동체 : 기초학문을 중시하여 검정고시 중심의 학습을 한다. 한꿈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중입, 고입, 대입의 검정고시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① 국어, 수학, 영어, 국사, 사회, 과학, 도덕, 독서, 논술 등의 검정고시에 필요한 기초학문을 학습한다.

② 검정고시를 위한 준비 외에도 미술, 탈춤, 서예, 악기 등의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배운다.

인성 공동체 : 공동체를 통해서 국, 영, 수 말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전의식을 준다.

① 기숙사 생활 : 학생전원이 시내산기도원에 있는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 한다.

② 매년 방학을 이용한 비전트립 : 새터민청소년의 특수성과 선교 지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비전트립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한꿈학교 학생들은 작은 선교사로 훈련 받고 세워진다. 이번 겨울 또한 일본에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③ 자원봉사활동 : 국내 미자립 농어촌에서의 봉사활동 및 장애인, 아이들,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③ **여명학교**

- 소개

우기섭 여명학교 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있다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23개 교회의 연합된 힘으로 시작된 여명학교는 불행하게도 본인들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에서 왜곡된 교육을 받아오거나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유이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라고 소개했다.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민족을 하나로' 이다.

- 여명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현황

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1년의 중등교정과 2년의 고등과정으로 편성되어있고 기본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중국어, 한문, 미술, 체육, 환경 등을 포함한 검정고시 및 지식 교육이다. 동아리, 특성화 과목으로는 생활미술, 영화연극, 생활체육, 문화체험, 열린사회, 통일한국, 진로상담 이 있다.

② 교육철학이념은 회복(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 본연의 참 모습을 찾는 것), 이해(다양성을 인정하며 상호존중의 의미), 사랑(타인의 다름을 인정함을 바탕으로 섬김과 겸손을 실천하는 것) 이다.

③ 매주 한번의 성경수업과 채플시간이 있다. 주말에는 영화 감상, 박물관 견학 등 문화활동을 한다.

④ 3개의 반이 운영되고 담임제이다. 정규학교와 같이 수업관리가 잘되고 있다.

④ **자유터학교**

- 소개

자유터학교는 새터민을 위하여 기독시민의 힘으로 설립 운영하는 비정치, 비영리 학교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1. 통일 이후 북한의 청·장년들이 남, 북간 차이를 극복할 민족야학의 모델
2. 새터민들이 남한의 자원활동가들과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친구가 되는 민족애 실천의 터전
3.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따라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북한과 온 세상에 널리 떨치는 사명의 터전
4. 자원활동가들이 탈북 학생들을 격려하고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장

- 조명숙 선생(여명학교 교감, 자유터학교 교장)과의 인터뷰

① 자유터학교의 특징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날마다 간증거리를 주신다. 기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새터민청소년을 많이 사랑하신다. 이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또한 새터민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은 이 시대 이 민족의 근본적인 대안이다. 그들의 시대는 완성하는 시대이다.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 자들은 이 시대의 젊은이다."

② 학교에서의 영성, 인성, 지성교육방법

"우리학교는 돌 고르는 작업을 하는 곳이다. 열매를 결실하고자 하는 곳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강퍅한 마음을 고르고, 기본토양을 만들어 준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회에 나가 열매를 거둔다. 이런 마인드로 교육을 하니까 훨씬 자유롭다. 그 마음 밭에 예배와 말씀을 통한 영성의 씨앗, 인성, 지성의 씨앗을 뿌리면 된다. 말처럼 잘하진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소명이기에 꺾이지는 않는다.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교육이 없다. 그냥 교사들의 삶의 모습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③ 자유터학교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사회가 없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

- 교과과정 및 활동

① 구성

2명의 전담간사와 자원봉사자들이 교사로 있다.

② 교과목

원어민 교사 중심으로 영어와 중국어 등 대학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야학 형태로 운영한다. 영어, 중국어 수업에 일반상식이나 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문화체험과 노동

월 1회 이상 문화체험, 노동,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영화, 연극, 뮤지컬, 전통문화의 감상을 통해 남북한의 다른 문화를 체험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알아 통일 후 함께 누릴 문화를 개발한다. 외국인 노동자, 난민, 수해 복구, 집짓기, 노약자, 장애인 목욕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남한의 건강하고 선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배우도록 한다. 모내기, 추수하기, 여름, 겨울 수련회, 조개 캐기, 밤따기, 연어잡기 등 계절별 프로그램과 명절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함께 땀 흘리며 나누고 웃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④ 인턴쉽제도

기업과 연계하여 방학 중에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인턴쉽을 통해 산업체에 복무하면서 사회인이 되기 위해 실질적인 준비를 시킴과 동시에 남한의 산업사회를 경험하게 해준다. 한국사회는 능력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새터민들에게 업종과의 만남의 장을 주는 것은 아주 특징적인 좋은 사례이다. 이를 위해서 민족에 대해 부담감을 가진 기독실업가들이 많이 일어서야 할 것이다.

⑤ 영어캠프를 열고 있다.

⑤ **장점**

- 위 학교들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복음적으로 양육하고 돌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복음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북한선교 및 열방선교의 귀한 통로로써 쓰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현실화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큰 도전을 주며 더욱 부지런히 기도하도록 격려한다.
- 빽빽한 일반학교의 시간표에 적응하지 못 했던 이들에게 자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 더 능률적이고 자신감 있는 학습을 하게 한다.

- 이들의 처지를 고려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여러 섬김의 손길들로 말미암아 편안하고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 여러 문화체험 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동체 정신 및 섬김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한다.

⑥ **아쉬운 점**

- 재정적인 면

  전체적인 운영이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모든 사업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학교에 배치된 교재나 책들이 열악하고, 새것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컴퓨터실, 식당 등의 시설이용 또는 공간활용에 있어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

- 학습적인 면

  개인별로 학력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피학습자 간 자존심의 문제가 있어 수준별로 수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실정이다.

  방과 후 또는 자율학습 시간이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교사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거나 혼한과 실망을 줄 수 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들이 실질적인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검정고시와 같은 입시는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최소한도 과정일 뿐인데 이것이 너무 큰 목표나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생활적인 면

  남한친구들과의 교제가 없다. 여러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방문하기는 하나 이들과 개별적 관계를 맺거나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많지 않아 또 다른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다방면에서 학생들을 돕고 보살필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⑦ **개선방향**

대안학교의 아쉬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아쉬운 점을 바르게 알고 그들이 요청하는 필요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정적 후원**

① 운영금 후원
② 검정고시 교재 또는 일반 영어교재, 여러 권장 도서 등을 후원
③ 컴퓨터 및 전자제품(시청각을 위한) 후원
④ 공간 활용(임대로 쓰고 있는 공간이 많으므로)을 위한 후원
⑤ 재정적 후원도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사전 연락이나 방문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정확히 알고 후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자원봉사자 연계**

① 준비되고 헌신하는 자원봉사자 교사가 필요하다.
②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을 연구 및 체계화시킨다.
③ 자원봉사자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이 때는 지역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될 수 있다.
④ 학교 차원으로 사회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도 좋다.

*** 크리스천 멘터와의 연계(학습 및 생활에 있어서)**

① 크리스천 멘터와의 1:1 멘터링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크리스천 멘터는 학습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적 마인드를 가지고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1:1 멘터링을 통해 수준에 맞는 맞춤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 여러 교회의 새터민 지원 공동체 신설**

① 새터민청소년들은 남한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들이 남한의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 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신설할 것을 기도로써 준비하며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② 예배 공동체가 많이 신설 될 경우 이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이고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한다.

2) 시민단체

① 무지개 청소년 센터

- 소개

무지개 청소년센터는 다문화청소년(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청소년)이 자신이 가진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상처 받거나 소외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게 기여하도록 돕기 위해 2006년 4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해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다.

- 2006년 활동 대상 : 새터민청소년
- 무지개 청소년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현황

: 무지개 청소년 센터는 새터민청소년들과 이들의 필요를 채울 관련 기관들을 연계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 새터민청소년 기초측정 및 평가 사업

새터민청소년의 학력, 정서, 인지, 신체발달에 대한 기초측정 도구를 개발한다.

초기 입국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수 측정한다.

하나원 퇴소 후 각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한 추가조사 시행을 통해 새터민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상황에 대한 종단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새터민청소년의 학력 결손에 대한 진단과 이후 학업 지원방안,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지방거주 새터민청소년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개발 사업

전국에 분산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청소년들을 10개 이상의 시, 도에서 표본으로 하여 교육 환경과 생활 방식, 진로, 진학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한다.

- 장점

새터민청소년들을 남과 북의 경계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으로 분류하여 그들만의 문화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는 새터민청소년들과 지원을 하려는 기관 간의 중재자가 꼭 필요한 실정이지만 부족했는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새터민청소년들이 더 나은 지원을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아쉬운 점

시민단체의 중립적 특성 상 기독교적 교육 대안 마련에는 고충이 있다.

이러한 단체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실정이라 실험단계에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아직 어떠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는지 검증된 것이 없다.

②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6년 5월 인권운동가, 지식인, 탈북자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시민단체이다.
-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활동: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휴머니즘 정신에 근거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북한 난민을 돕기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해 나가고 있다.
- 캠페인 :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 난민의 침상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린다.
- 북한난민 구호 및 조사활동
- 탈북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 새터민청소년을 위한 한겨레 계절학교(여름, 겨울 2회)
  새터민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년에 두 차례 방학 기간 중 3주 동안 기초 학력 증진과 민주 시민 교육에 주안점을 둔 계절학교를 운영한다.
- 가정방문 학습 지도
  :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1회 이상 방문하여 학업을 도와준다.
- 하나되는 나들이
- : 탈북 아동·청소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고궁, 박물관, 과학관, 전시회, 영화관, 놀이동산 등에서 하나되는 시간을 갖는다.
- 하나원 방문
  : 북한이탈주민 정착시설인 하나원을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NKFR팀이 하나원을 방문한 요일이 마침 토요일이어서 북한인권시민연합 팀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짧게 나마 참여할 수 있었다. 아동반과 청소년반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했는데 우리 팀은 청소년 반에 참여했다. 그 날의 학습 주제는 대중교통,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때의 에티켓에 관한 내용이었다. 수업 이후 시간에는 함께 피구를 하면서 남한의 놀이 문화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다채롭고 자유로운 체험 학습의 장이 인상적이었다.
- 탈북 대학생을 위한 리더십 교육
  : 탈북 대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대학생활 및 진로를 제시하고 졸업 후 취업 및 인생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며 통일 후 남북 간의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교육·훈련·학술 사업
  : 앞으로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북한 인권과 난민문제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북한 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연간 2회 실시)
-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 매년 7월, 2박 3일 동안 대학(원)생 자원 봉사자들에게 북한난민의 현황과 실태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가 강의, 토론, 탈북자와의 대화, 비디오 시청, 역할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의 북한 주민의 생활, 재외탈북동포, 국내 탈북동포, 북한인권 실태 등의 다양한 북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통일에 대한 마음을 다진다.
- 대학방문 인식교육 프로그램
- 학술토론회, 월례간담회, 청년 인권 활동가 워크숍
- 출판
  : 북한인권, 북한난민의 상황을 월간, 계간,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외에 알리고 있다.

- 장점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국제적 캠페인, 국제 회의 및 재외 탈북자 지원 등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진행 하고 있다.

  국내 새터민 지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나원 방문 자원봉사는 쉽게 개인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곳으로써 이 단체를 통해서 가면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 아동 및 청소년들과 교제할 수 있다.

  탈북자 만 명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한국인들의 인식개선은 가장 시급한 일일 텐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한국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그리고 탈북동포 및 새터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과 탈북동포 및 새터민들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아쉬운 점

  시민단체의 중립적 특성 상 기독교적 교육 대안 마련에는 고충이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같이 공유하고 섬길 수 있는 더 많은 단체와 손길들이 생겨야 한다.

3) 지역사회복지관

: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은 하나원을 퇴소한 후 거주지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발생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후속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부재하거나 지역차원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복지관은 전국에 23개 이상이 있고, 서울에는 6-7개 정도의 복지관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주변 복지관에서 이루어진다.

①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가족지원팀

-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이 사업은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40세대 정도가 이 지원을 받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 프로그램
  한 세대가 하나원을 퇴소한 후 강남구에 전입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는 이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된다. 이로써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사업
  통일부에서 위탁 받은 사업으로써 하나원 퇴소 후 강남구에 거주지를 배정받은 신규전입세대를 대상으로 1년간 초기정착을 지원한다.
- 북한이탈주민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사회적응속도의 차이로 인한 나타나는 세대간 갈등에 대해 전문적인 접근과 개입을 통해 가족기능의 향상을 도모한다. 가정의 달 행사, 가족문화체험행사, 가족캠프, 가족송년모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활동
  지역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상호교류와 관계망을 형성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주민세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후원금 및 후원물품), 명절 행사, 월동준비 지원, 복지관 문화교육프로그램 무료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가 있다.
- 탈북 아동청소년지원서비스
  탈북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사회문화적인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된 사업은 탈북 아동청소년 멘터링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개별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어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보다 개별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멘터링 결연식 및 종결식(3월, 12월)
  현재 멘티(멘터링을 받는 사람)의 수가 부족하고 복지관 내 기 대상자들이 그 동안의 멘터링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멘터링을 할 필요가 없어져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멘터링은 남북 통합의 실제적인 장으로써 매우 중요한 지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 학습상담활동(주 1회)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멘티가 부족한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멘터링 지원보다는 주로 학습적인 지원이 강화되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주 1회 정도 어려워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을 지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개별여가활동(연 4회)
  방과 후 시간 활용이 안되고, 경제관념에 대한 개념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멘터와 함께 독서활동, 체육활동, 쇼핑 등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한다.
- 집단활동(연 3회)
  예절학교, 놀이공원 등의 문화체험을 한다.
- 멘터교육 및 간담회(연 4회)
  새터민 이해, 새터민 정착지원 이해, 멘터에 대한 이해, 멘터 사항에 대한 이해 등을 강의하고 실제 어려움들에 대한 나눔 및 평가, 사례별 토의 등을 진행한다.
- 그 외
  중고등학생의 일부는 학원을 연계해 주기도 하며, 학교에 안 다니는 새터민청소년들에게 진로지도 및 정보를 제공한다.

②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북한이탈주민사업**

- 초기정착민을 위한 노력지원사업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안내
  물품지원사업
  남북한가정의 생활 및 문화공유를 위한 결연가정사업
  심리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경제적 자립을 위한 후원금(품) 지원안내
- 가족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개별 및 집단지도 프로그램
  욕구파악을 위한 다양한 조사사업을 실시

대상자중심의 취업교육
지역 내 연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취.부업 알선 및 지도
문화 및 생활적응을 위한 문화체험 및 가족행사
욕구파악 및 해소를 위한 개별, 집단 상담

- 아동 / 청소년을 위한 학습, 정서지원 (하누리교실)
  아동 / 청소년의 문화적응을 위한 문화체험교실
  학습적응력향상을 위한 개별 / 집단학습지도
  또래집단활성화를 위한 동아리활동지도
  학습능력 및 경제적 여건개선을 위한 후원 / 장학사업
- 아동/청소년 멘터링 지원
  멘터는 집단 또는 개인으로 모집한다.
  집단으로 멘터를 하고자 할 경우 자매결연을 통해서 2달에 1번 꼴로 만난다.
  멘터는 새터민 이해를 필수적으로 교육받는다.
  멘터링이 잘 이루어질 경우 대상자의 부모님까지도 연결되어 확장된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본 복지관이 제작한 새터민 이해교육에 관한 자료집도 제작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 수정하기도 한다.

③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의 탈북아동, 청소년 대학생 지원사업**

- 초등 공부방 사업 : 무지개 교실I
  사업내용 : 탈북세대의 자녀들을 위한 전용 방과후 학습 쉼터로서 학력차이에 대한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서적 개입으로 개별상담 및 가정방문, 학교연계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대상 : 초등학교 1학년~6학년 13명
  교육내용 : 학습교재를 활용한 기초학습지도/ 월1회 야외활동/ 전문강사 활용한 독서지도 및 영어지도/집단프로그램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5회 운영 (학기 중 3시~6시, 방학 중 1시~6시)
- 청소년 학습지도 : 무지개교실Ⅱ(학습멘터링)
  사업내용 : 긍정적인 모델링이 가능하면서 학습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멘터 발굴, 학습지원을 한다. 희망하는 새터민청소년을 돕는 개별연계인 가정방문학습지도를 실시한다.
  대상 : 중·고등학생 또는 검정고시 준비 중인 청소년 10명
  교육내용 : 국영수 중심/ 검정고시 지도(시험정보제공, 시험준비지원), 대학생자원봉사자와의 멘터링(문화체험활동, 대학교 및 서점 탐방 등 월1회 실시)

- 대학진학 & 적응지원프로그램

  대학진학지원

  대학진학 예정자를 위한 진로상담 및 원서작성지도, 대학진학가이드를 제공한다.

  예비대학모임 '새내기 대학가다' 프로그램

  대학입시설명회(7월)

  대학적응지원(캠퍼스 멘터링 프로그램)

  동일 대학의 대학생 봉사자와 1:1로 연계하여 공통 관심사를 매개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형성을 지원한다. (이메일 및 전화활용 의사소통, 월1회 meeting 실시)

  학부모교육&간담회

  사업내용 : 초등반, 중등반 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양육태도 등과 같은 자녀 관련 내용 및 학부모 교육 실시 & 부모들간 정보 및 이야기 교류의 시간을 갖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

  연 2차, 5월과 10월에 용동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④ **지역사회복지관의 장점**

- 새터민들을 섬김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새터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을 위한 지역적 특성을 갖춘 여러 서비스 활동을 잘 감당하고 있다.

⑤ **아쉬운 점**

- 새터민만을 위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회복지사로 출발하여 일손이 부족한 곳에 충원되어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중에 그 분야에 확실한 전문가가 없다.
- 정부에서 지원을 받긴 하지만 민간단체이다 보니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 이런 복지관들은 많은 수의 새터민들이 있는 특정 지역에만 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새터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가 힘들다.

⑥ **개선방향**

- 인원은 적더라도 새터민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들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더 세워지길 바란다.

-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노하우를 복지관끼리 공유하여 기존의 잘된 점을 배우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길 바란다.

4) 교계

① 온누리교회(하나공동체&한꿈공동체)

- 소개

  하나공동체는 2002년 10월 초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모태로 새터민들과 온누리교회 내 북한 선교 헌신자들의 2003년 6월 29일 첫 예배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 공동체는 본래 통일 후 북한에 세워져야 할 교회상을 찾기 위한 마인드에 근거해 세워졌다. 작년(2005년) 하나공동체는 새터민 청장년 공동체(하나공동체), 새터민청소년 공동체(한꿈공동체)로 나뉘었다. 한꿈공동체에는 나이가 적은 청소년들(최소 13세에서 최대 20세)이 많다. 그래서 그들은 남한 사회에 빨리 적응했고 거리낌 없이 친근하게 남한 사람들을 대한다.

- 한꿈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현황

  새터민청소년 예배

  예배 전 교사 기도회

  소모임

  교사 한 명 당 몇 명의 아이들이 한 조가 되어서 함께 성경공부를 한다.

  문화활동

  뮤지컬 연습, 영화 감상 등 문화활동에도 힘쓴다.

  먹골쉼터사역

  자원봉사자가 강의식으로 학습지도를 한다.

- 장점

  예배 공동체이다 보니 새터민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한다.

  교사들이 맡은 청소년들을 마치 자녀들을 돌보듯 철저히 챙기고 사랑한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다. 이런 과정에 그들을 깊이 만남으로써 그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준다.

  이들을 북한선교의 동역자로서, 통일 시대의 통일 주역으로 함께 친구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이다.

- 아쉬운 점

  출석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집과 교회간 거리가 먼 편이다.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오고 간다.

  새터민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하는 태릉에 위치한 먹골교육사역을 섬길 손길도 많이 부족하다.

  좀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 개선방향

  한국 교회 및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귀한 예배 공동체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먹골교육사역과 같은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역에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섬김이 필요하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북한 선교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

② **사랑의교회(북한사랑선교회)**

- 소개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 '북한사랑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운 이웃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이웃인 새터민들이 남한 생활에 잘 정착하도록 섬기고 제자 훈련을 통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다. 또 남한 성도들에게는 새터민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터민 사역에 간접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올바른 통일의 비전을 가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새터민들과 함께 북한선교의 동역자로서 북한 선교에 헌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교회이다. 하나공동체와 한꿈공동체와 같이 북한사랑선교회에도 새터민 장년 예배와 청년, 청소년 예배가 별도로 존재하고, 한동대학교 상담사회복지학부의 윤인 교수 등이 섬기고 있다.

6. 새터민청소년을 위한 복음적 노력

(1) 멘터링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라. 그는 절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제임스 돕슨의 [양육은 겁쟁이를 위한 곳이 아니다]에서 인용

새터민과의 멘터링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관련 담당자들이 동의하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한꿈학교 김성원목사님은 준비되지 않은 멘터와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며 '진정 그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그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설프게 그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실질적으로 그들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 생명을 다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 라고 했다. 무지개 청소년센터의 윤상석 행정기획팀장은 멘터들의 새터민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하며, 부실한 멘터링의 무용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새터민전문가와 활동가, 담당 사회복지사 몇 분은 멘터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적했다.

1) 새터민청소년의 멘터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2) 사명감 없이 그냥 탈북자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는 경우,
3) 새터민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4)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무조건적인 동정의 대상 혹은 긍휼의 대상으로 봄)

한 새터민이 작성한 글에는 이러한 우려가 여실히 나타나 있다.

편견

남한사람 같은 새터민이 바람직한 새터민은 아닙니다.
새터민의 친구는 새터민 만이 아닙니다
새터민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에 대한 편견을 버립시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버립시다.
새터민을 평가하는 기준을 버립시다
새터민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새터민이니까 '안돼' 라는 생각을 갖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새터민과의 멘터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터학교 조명숙 교장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덜어줘야겠지만 고난을 겪은 자들에게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며 곁에 있는 자의 중요성을 말했고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가족지원팀 손영지 사회복지사는 "남북

통합의 실제적인 장이 멘터링이다.” 라며 멘터링의 의미를 잘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크리스천 멘터는 세상적 방식의 멘터역할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새터민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멘터는 복음이 단순히 구원만 주는 일회성의 상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새터민과 함께 복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 걸어가는 자여야 한다. 멘터는 자신을 새터민의 멘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 방심하면 자기의, 자기 뜻이 드러나게 되고 어느 순간 멘티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멘티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라. 당신의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말하라.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라. –밥빌의 멘터링에서 발췌

다음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멘터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손영지사회복지사가 제안하는 ‘새터민의 멘터가 가져야할 태도’ 목록이다.

〈새터민의 멘터를 하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

1) 편견을 없애야 한다: 왜 이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반드시 생각할 것
2) 인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등 기본적 규범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멘터링을 할 때 상당한 인내력을 필요로 함
3) 책임감: 자원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질 것
4) 멘티와의 유사성: 나이차, 성별, 관심사 등 고려
5)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함
6)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질 것 (그들이 얘기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
7) 그들의 삶을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 개인으로서 받아들일 것
8)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것

(2) 수련회, 캠프

어떤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만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 특히 새터민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찾고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터민을 위한 수련회나 캠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별히 한우리비전캠프는 한우리교회, 서울대학교 기독학생연합의 새터민 청소년 학습 지원 프로그램인 ‘북한아이 껴안기’, 예수전도단 북한선교연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캠프로서 올 여름 캠프로 6회째를 맞이하였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남한대학생과 여러 교회와 지역에서 새터민청소년, 청년들이 모여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캠프를 위해 협력 하고 동참해 온 정베드로 선교사는 6회 캠프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글에서 한우리 비전캠프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 바 있다.

'목적은 남북의 형제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됨으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랑하고 섬김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한 마음을 서로 품고 준비하는 연합과 연대 그리고 합력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은 상처와 괴로움 그리고 적대시하는 마음들과 자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훈련 받고 절제된 자들의 기도와 섬김과 지혜로움과 인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서로를 품고 받아들이고 녹아져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위로를 같이 체험하고 능력을 공급 받는 시간입니다.'

그 밖의 개 교회나 기독교 대안학교에서의 새터민이 참여하는 수련회나 캠프는 탈북자 만 명 시대와 많은 새터민들이 남한에서의 어려움에 믿음을 잃어가는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그 중요성 더해갈 전망이다.

(3) 선교훈련지원

하늘꿈학교 졸업생 김현(가명) 형제는 하늘꿈학교의 프로그램 중 해외선교지에 가서 1년간 영어를 공부하기도 하며 선교사를 돕는 활동에 선발되어 1년 동안 피지 선교지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하러 온 한동대 태평양지역 선교팀인 PFR을 두 차례 만나는 등 남한 대학생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며 선교지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연합할 수 있었다. 특히 영어권 선교지로 나가는 경우 새터민청소년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를 현지에서 배울 수 있어 이들에게 앞으로의 학업에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큰 이점이 있다. 그러나 하나꿈학교 이경원 총무는 1년 동안 선교지에 믿고 보내기에는 청소년들이 아직 조금 더 성숙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려면 새터민청소년을 품고 훈련시키려는 선교사 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하여,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채워져야 한다.

한꿈학교에서는 연1회 해외아웃리치(선교지방문)를 한다. 담당하시는 김성원 목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하여 작은 선교사로 세워지는 훈련"이라고 하셨다. 북한선교와 민족복음통일의 새터민의 역할을 고려할 때 새터민청소년을 위한 선교훈련지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앞으로의 삶을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가게 도와줄 것이다. 이들이 변화를 받아 가족과 새터민친구들,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고 생각할 때 선교훈련지원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새터민청소년에 대한 선교훈련지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향한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확신하며 기도한다.

(4) 생활공동체

"검정고시는 사회적응의 한 과정일 뿐, 공동체는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장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또 공동체를 통해서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삶의 단면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한꿈학교 교장

같이 공부하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서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새터민청소년 생활공동체의 형태를 이루는 곳은 기숙형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와 한꿈학교, 그리고 다리공동체 등이 있다.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만을 가지고는 서로간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
공동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규칙이 있고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한 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자연히 규칙과 책임을 배우게 되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배울 수 있다.
공동체에서 우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관계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배우게 되고, 같이 계속 사는 이상 갈등해결방법 모색하게 된다. 성숙하면 할수록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 형제애를 키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개인생활을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동체생활을 할 때야 자신의 장점과 결점이 드러나며 친구의 어떠함을 배울 수 있다. 자신이 드러나게 될 때 생각보다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은 은혜이다. 이런 과정에 있는 새터민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으로 함께 걸어가줄 사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1) '나'에게서 '우리'로

공동선과 인격 존중 사이에서, 개인의 요구와 필요 그리고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 사이에서, 개인적인 달란트와 공동체의 구조 사이에서, 그 균형을 이루기가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올바른 균형을 찾는 지혜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우게 된다. 공동체는 날마다 "나"에게서 "우리"로 가는 인내의 길을 걷는 자리이며, 내 일에서 공동체에 위탁된 투신으로, "내 것"을 찾는 데에서 더 높은 가치, "그리스도의 것"의 추구로 나아가는 장소이다. 이렇게 하여, 공동체는 날마다 우리가 풍요롭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형제적 친교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5) 예배공동체

그 동안 교계에서는 동정심에 기반한 감정적인 동기로 새터민을 지원하고 도왔다. 이제는 교회안에서 그들을 한 가족으로 품고 하나님 안에서 지체됨을 인식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계에서 예배공동체의 형성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교회차원에서는 온누리교회 하나공동체(청소년부-한꿈공동체), 사랑의 교회 북한사랑선교회, 열방샘교회가 대표적이다.

1) 온누리교회 하나공동체

하나공동체는 2002년 10월 초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모태로 새터민들과 온누리교회 내 북한 선교 헌신자들의 2003년 6월 29일 첫 예배로 시작하게 되었다. 작년(2005년) 하나공동체는 새터민 청장년 공동체(하나공동체), 새터민청소년 공동체(한꿈공동체)로 나뉘었다. 한꿈공동체에는 나이가 적은 청소년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은 남한 사회에 빨리 적응하였고 거리낌 없이 남한 사람들을 대한다.

"대안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성이 바뀌니깐 사람이 많이 달라집니다 한꿈공동체 청소년들 초기와 달리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영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수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도 함께 준비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와 회복을 위해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함께 훈련받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공동체 입니다"[30]

한꿈공동체는 헌신된 교사가 많다. 예배 전에 뜨겁게 교사기도회를 가지며 자신의 반의 청소년들에게 지극 정성이었다.

2) 사랑의 교회 북한사랑선교회

북한사랑선교회는 사랑의 교회 이웃사랑선교부는 2004년 3월 "이 땅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를 놓고 세미나를 하던 중 새터민의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해 연말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여 2005년 6월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새터민들이 남한 생활에 잘 정착하도록 섬기고 제자 훈련을 통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또 남한 성도들에게는 새터민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터민 사역에 간접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올바른 통일의 비전을 가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30] 마수현 전도사(온누리교회 양재성전 한꿈공동체 담당교역자)과의 인터뷰

새터민들과 함께 북한선교의 동역자로서 북한 선교에 헌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교회이다.

"북한사랑선교회의 중점사역방향은 '가까운 이웃 중에 가장 어려운 이웃'인 새터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한 생활에 정착하게 돕고, 본 교회의 목회철학에 맞게 훈련을 통하여 새터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교회성도들로 하여금 새터민을 통하여 북한을 이해하고, 새터민과 더불어 북한선교의 동역자로 성장해가며, 통일이 되면 북한선교의 선봉장들로 헌신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선교는 우리 한국교회의 필수 과제입니다."[31]
북한사랑선교회는 사랑의 교회 성도와 새터민이 일대일 멘터링 관계를 맺어 비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3) 열방샘교회

열방샘교회는 새터민교회로 알려져있다. 1998년 탈북하면서 중국에서 신앙을 갖게 된 이빌립전도사는 2004년 2월 주위의 도움으로 서울 고척동 한 상가건물에 예배처소를 마련, 인근에 거주하는 새터민과 예배를 드리며 목회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출석 성도가 30여명이 넘어서자 드디어 교회 창립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통일 후 북한 선교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저를 가로막을지 모르지만 북한과 중국에서 겪은 고통보다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뜬히 이겨나갈 겁니다." 이 전도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통해 새터민들의 정착생활을 돕는 한편 북한 선교사 400명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목회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32] -

"열방샘교회는 예수님의 비전과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G-12 교회를 이루어 북한선교와 열방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2006년 사역방향을 볼 때 알파코스와 G-12, 그리고 문서 전도와 플래 카드를 통한 홍보 무료급식과 중보기도사역을 중점에 두었고 특별히 영성 있는 교회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4) 기독교 대안학교(하늘꿈학교, 한꿈학교, 여명학교)에서 예배공동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31] 북한사랑선교회 담당교역자 이금구 목사
[32] 국민일보 2004년 9월 12일자

① 하늘꿈학교

하늘꿈학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6시 새벽기도회가 있고 매일 아침 조회시간을 담당 전도사의 말씀메시지와 기도로 시작하여 하루 일과를 연다. 화요일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찬양과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 중심의 채플을 드리고, 그 후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역자, 교역자들이 그룹별로 성경공부 시간을 가진다. 최근까지 '목적이 이끄는 삶'을 교제로 공부하고 있었다. 금요일은 9시에 금요기도회 시간을 가지는데 반 정도만 참여하는 분위기다. 말씀선포와 중보기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을 나누고 개인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한다. 주일예배도 학교에서 담임 전도사가 인도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자유롭게 지역교회에 출석하기도 한다.

"저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특별히 신앙 공동체로 꾸려가고 있는데 특별히 어른들이 아닌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친구들이 북한을 향해서 영적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33]

② 한꿈학교

한꿈학교는 시내산기도원안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꿈학교 식구들은 기도원의 규정에 따라 예배시간을 지키고 있었다. 월요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기도회, 주일예배까지 기도원을 찾는 성도들과 기도원 안에서 생활하는 운동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예전까지는 거의 매일 예배를 드려서 너무 빡빡했는데 지금은 많이 느슨해졌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은 아침묵상시간이다.

③ 여명학교

여명학교는 주1회 전교생이 채플을 드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요일에 한시간씩 반별로 성경이라는 과목이 있다. 매일마다 교사들이 모여 교사기도회를 가진다.

[33] 하늘꿈학교 송경곤 전도사와의 인터뷰

Ⅳ_결론

“하나님의 계획과 새터민청소년의 현실 사이의 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되어 열방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은 이미 시작 된 지 오래다. 그러한 이상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가시거리 안에 들어 와 있다. 그러한 증거의 일환으로 현재 새터민들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에 반응하는 것으로써 그들과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통일의 세대를 책임지게 될 새터민청소년들에 주목하고 그들이 본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이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신뢰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나 기대치에 그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스스럼 없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북한사람 또는 남한사람으로 경계를 나누려 하기 보다는 그냥 그들 그 자체,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구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실제로 동참해서 도울 수 있는 여러가지 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북한선교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함께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터민청소년을 위한 복음적 필요와 대안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자 하였다. 앞으로 한국 교회 그리고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새터민 그리고 새터민청소년들, 더 나아가 북한 땅을 섬기며 기도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분연히 일어날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과 동역을 바라마지 않는다.

1. 개인적 차원의 역할

(1) 새터민 이해, 배려 및 인식전환

새터민에 대한 관심과 정보의 부족으로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남한주민들의 새터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배려,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날 때 마다 같은 질문과 대답이 반복된다. 가령, 새터민들에게 가족에 대해 물으면 가족에 대한 아픈 사연이 있는 새터민은 그 고통을 반복적으로 끄집어 내야한다. 그 밖에 너무 구체적으로 질문해서는 안되며,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대화들이 무엇인지 인지해야 한다. 또한 남한사람들, 특히 크리스천들은 긍휼과 동정의 대상으로 새터민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니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원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우월의식도 항상 경계해야 할 위험한 것이다. 이민을 오게되 어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들의 문제는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그 아픔을 공감하는 우리는 새터민들을 남한사회의 한 일원인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본적인 이해와 배려를 갖추고 선입견없이 그들에게 다가갈 때 새터민들과의 화합은 훨씬 수월하다.

(2) 진정한 친구, 이웃이 되기

우리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자. 생각보다 가까이에 새터민 친구들이 있다. 이웃에 살면서, 곁에 있으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힘든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이웃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것이다. 삶의 일부를 기꺼이 나누어 주고, 함께 삶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에 갈 곳 없는 새터민친구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어 함께 있는다는 것은 큰 힘이 된다. 교육과 생활의 문제가 시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이웃이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라 여겨진다.

(3) 헌신되고 꾸준한 신실한 멘토

이전에 언급했듯이 겪은 고난의 의미를 함께 찾으며, 복음의 능력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멘토가 필요하다. 일시적, 충동적인 멘터링은 경계해야 한다. 이 일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며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밑에 있는 내용은 헌신되고 꾸준한 새터민청소년의 멘터가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작은 희망을 낳고 있다.

-멘티에게 주는 편지-

"나는 너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너를 위해서 기도할거야. 네가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 함께 살아있는 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해. 힘이 닿는 데까지 너의 힘이 되고 싶어.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래. 넌 참 귀한 영혼이야, 그리고 넌 참 좋은 사람이란다. 금방 나아 질 거야. 앞에도 말했듯이 나는 앞으로 네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를 위해 자세히 기도할 수 있도록 자주 나를 만나 줄 수 있지? 네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너의 인생 멘터가 되고 평생의 친구가 되고 싶구나"

-멘터 사명선언문-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겠습니다.

1.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인식하고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2.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겠습니다.
3. 멘티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먼저 모범이 되겠습니다.

내게 허락된 멘티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 그리고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1.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만 목적이 되고,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멘티를 사랑하고 섬기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2.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멘티를 섬기겠습니다.
3. 멘티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길 기대하고 소망하되
   기대치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4. 매일 멘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4) 기도의 중요성

북한선교를 위해 모퉁이돌선교회, 한국CCC, 예수전도단 북한선교연구소,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한민족복지재단, 진리와 자유, 자유시민대학, 기독교북한선교회 등 전국의 수많은 단체들이 연합하여 북한중보기도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PN4N의 지역별 연합 기도 활동(포항 지부는 한동대학교 NKFR)과 매월 구체적적인 묵상과 기도제목을 담아 발간되는 소식지 등을 통해 함께 연합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북한선교에 있어서의 큰 축으로서 새터민을 복음적으로 돌보는 일은 기도의 연합이 절실한 영적 전쟁이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위해 겸비하고, 합심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안고 기도해야 한다.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소개, 권유하여 동참을 이끌어 내자.

(5) 실제적인 사역을 위한 제언

새터민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 공동체(교회, 학교, 동아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새터민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시도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들의 바람처럼 상처를 잘 극복하고 사회 일반에 잘 편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땀을 흘렸던 것과 같이 수많은 개별 공동체가 감당할 몫이다. 새터민 청소년들이 기대하며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교육, 즐거운 생활 공동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6) 정보제공을 위한 제언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고, 수신자 부담 상담의 전화를 개설한다. 특히 새터민 청소년들의 주관심사이자 고민인 진학 및 진로상담, 그 밖의 고민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헌신된 상담위원을 위촉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들의 고민은 생각보다 많지만 생각처럼 쉬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과 핸드폰 문화는 이미 새터민 청소년들의 삶 속에도 깊숙히 침투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십분 활용하여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해결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또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사회 일반의 주의를 환기한다. 올해 개봉되었던 '국경의 남쪽'과 같은 영화는 오락성을 떠나서 탈북동포들의 삶과 애환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영화였다. KBS 인간극장과 같은 현실 보고형 휴먼 다큐멘터리 제작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풀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 교육을 위한 제언

새터민 청소년들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발전적 미래로 가는 중요한 잠재적 재원이 될 수 있다. 교육적인 면은 그러한 가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이다.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론과 제도가 생겨나야 한다. 현재의 교육론은 새터민이라는 21세기형 피교육 대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가 일어나 이 부분을 다루고, 연구해야 한다.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체계는 물론 남한 사회 전반을 계몽하고, 선도할 수 있는 신교육 체계가 부상해야 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업 과정에서는 대안학교가 일부 생겨났지만 이들이 약육강식의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하고, 복음적 돌봄과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동대학교와 같은 대학이 비록 소수이지만 2005년부터 매년 새터민 청소년들을 특별전형을 통해 유치하면서 일정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 교회 차원의 역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새터민들을 전도하여 교회에서 수용하고, 양육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 내에 새터민이 있을 경우 기도모임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 안에서의 기도모임은 중요하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새터민이 있을 경우 교회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며 성도들이 함께 북한과 열방을 위해 준비될 수 있다. 온누리교회의 경우 하나공동체의 예는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만 교사 외 성도들의 무관심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북한과 민족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교역자들이 설교나 글로 새터민의 존재와 그들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알릴 수 있다. 북한에 관심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새터민들에 대해 잘 모를 것이고 역사와 시대에 대해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권위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실제로 새터민들이 곁에 있으면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새터민들과의 결연관계를 맺는 것이다. 새터민들이 모여 있는 곳, 예를 들어 대안학교나 공동체에 가서 주님 안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들과 삶을 나누며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결연관계를 맺으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그들에게서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반면에 그들에게 너무 유별나게 대해서 부담을 주거나 교회에 오는 것이 꺼려지게 해서는 안된다. 일부 새터민 청소년들이 교회에 가기 싫다고 증언한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크다.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들에게 맞추줄 수 있는 유연함과 온유함,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또한 열방에 화해와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그들이 중재자이자, 증언자로 일어설 수 있는 동원을 감당하는 것도 향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3. 한동대학교의 역할

(1) 선교단체, 동아리 차원의 역할

한동대 개별공동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참 많다. 먼저 NKFR 팀은 조사 연구한 자료와 중보기도요청과 정리된 중보기도 제목들을 아시아지역연구소를 통해 북한선교연구소, PN4N, 기도24365, 포항북한기도모임 등 선교단체와 중보기도단체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포항지역 교회와 개 교회 북한선교회에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포항지역 새터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한 후속 조사연구가 계속될 것이다.

NKFR 팀이 주축인 한동대 PN4N 기도모임과 협력하는 북한중도기도모임은 1998년도부터 겸비함과 긍휼과 애통의 심정으로 기도해 오고 있으며, 교내 학우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동참을 촉구해 오고 있다. 더불어 한동중보기도모임(생기)과 함께 한동대 내의 새터민 친구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먼저 그들과 연합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꿈학교에서 공연한 적이 있는 Amazing Story와 Pitch Pipe와 같은 공연분과 동아리는 새터민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대학문화와 복음적인 메시지를 알릴 수 있고, 특히 문화를 통한 사회봉사와 섬김을 감당할 수 있다. 건강한 기독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컴앤씨와 같은 경우 공연에 새터민청소년들을 초대하여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봄, 교내에 새터민을 초청한 적이 있는 나누미의 경우 지속적으로 포항지역 새터민을 초청하거나, 새터민청소년 대안학교 등을 초대하여 기독청년들과 새터민청소년의 만남와 화합, 이해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학부(상담사회복지학부 등) 차원의 역할

한동의 학부에서도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한동대 상담사회복지학부는 좋은 예가 된다. 우선 사회복지 수업시간이나 청소년상담 수업과 같은 시간에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새터민청소년들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공유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회복지학, 상담학 전공자와 수업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들은 많이 않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학습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학부 온라인커뮤니티에 관련자료를 올려놓고 필요를 나누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인드로 상담과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현장에서 섬기길 원하는 학우들에게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 차원에서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도 좋다. 상담사회복지학부 학회 '한톨'은 새터민을 또 하나의 대상으로 품어 관련 소학회를 신설하고 관련 연구와 섬김의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수강과목에 현장실습이 있는데 학부 측은 상담사회복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새터민청소년 대안학교나 사회복지관 새터민지원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모든 학부차원의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서, 앞으로의 현장에서 기독교적 마인드로 활동할 상담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 지역 새터민들을 섬기고 상처 받은 새터민영혼들과 함께 아파하고 치유할 날들을 기대한다.

(3) 학교 당국과 학생기구 차원의 역할

한동대학교 교육과정에 사회봉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필수로 2학기 동안(한 학기 동안 22시간 봉사하기.) 지역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 포항에서 하는 것이지만 경주에 가서 하는 사회봉사도 있다.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학점으로 인정되지만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사회봉사를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되고 섬김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 200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항에 거주하는 새터민은 50여명 정도 된다. 새터민 청소년이 있다면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위한 과외지도 사회봉사가 추가 되어야 한다.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도 그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사회봉사나 자원봉사로 인정하여 적극 권장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동대는 매년 북한중보기도주간을 지켜오고 있다.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지만 교내 새터민친구들과 지역 새터민 크리스천들과 영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축제(1년에 2번) 때 마다 열리는 섬김마당이 있다. 섬김마당은 포항지역에 있는 사회적 소외계층과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학교로 초대하여 교제하고 섬기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행사이다. 여기에도 새터민들과의 만남을 넣음으로써 사람과 사람,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포항으로 부르신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학교차원에서 새터민들이 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총학생회와 학교측에 그들을 위한 배려를 요구하고 싶다. 교내 근로장학생 선정은 지금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새터민들이 지속적으로 한동대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를 다른 대학교의 현실을 보고 한동대의 장점을 살려 미리 대비해야 한다. 새터민청소년은 무연고인 경우가 많은데 그들을 위한 물질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갈 곳 없고 외로운 그들을 위한 기숙사입주 우선 배려, 식비 지원 등의 혜택 등의 제도적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한동대학교에는 제3세계 각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수학했다. 이슬람교, 불교 등을 자신의 종교로 소개했던 이들도 졸업 무렵에는 자신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변화에는 수많은 학생들의 기도와 관심, 사랑과 온정 그리고 의생활, 식생활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부분은 학교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고, 섬겼던 많은 단체와 포항지역 외부교회의 힘도 컸다.

교내에 북한을 품은 많은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 북한관련공동체들 그리고 총학생회, 교수진까지 연합하여 네트워크를 이루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 기도와 힘과 자원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될 때 더 놀랍게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을 유치하여 그들 각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 속한 곳, 나아가 저 북한을 변화시킬 귀한 하나님의 인재들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시대사명이다.

V_Epilogue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소망함, 하나님의 약속, 한민족의 미래"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보았습니다. 말은 항상 쉽습니다. 시간과 자료만 더 있다면 해결방안이나, 대안이나 문제점 등등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그 이유와 타당한 근거도 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수많은 전문연구자료와 논문들. 최고의 전문가들의 제 각각의 말들. 정말 감탄할 만한 탁월한 분석과 필요한 대안들이 많습니다. 정말이지 현실과 구조화된 틀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방안들이 말처럼 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답이라면 답일 것입니다.

♪『 "레모네이드, 5센트."

딸에게 소중한 교훈을 체험하게 해주려고 레모네이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딸은 열심히 장사를 하였습니다. 모든 이웃들은 딸을 칭찬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레모네이드 한 잔 주시겠습니까?" 나는 눈을 떴습니다. 손님이었습니다. 초대 받지 않은 이 낯선 손님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서 차를 세우고 주문을 했습니다. "우와." 마침내 우리의 서비스가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살짜리 안드레아가 이미 사용한 컵을 꺼내려 했습니다. "깨끗한 컵을 가져와야지." 내가 속삭였습니다. "아!" 그녀는 웃으면서 깨끗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얼음 상자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안드레아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얼음이 떨어졌어요." 손님은 그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마치겠어요." 딸은 주전자를 들고 컵에 레모네이드를 따랐습니다. 레모네이드 줄기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아빠,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고객이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많이 마시고 싶지 않아요." "맛있게 드세요." 나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안드레아가 컵을 건네주자 그는 그것을 받고서 딸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아는 그것을 젠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젠나는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렇게 큰 지폐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에, 우린 지금 돈이……" "걱정 말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스름돈은 넣어두세요." 나는 계면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동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래군.'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시원하지도 않은, 그것도 한 컵도 안 되는 레모네이드를 주었는데 그는 우리를 칭찬해주었고 돈도 스무 배나 많이 주었어.' 나는 딸들에게 진취적인 정신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은혜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그 어떤 신학적인 설교보다

그 낯선 사람의 친절한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

-멕스 루카도 '힘든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에서 발췌

새터민청소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와 관련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각자가 되어야 합니다. 레모네이드라도 좋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먼저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날마다 각자가 죽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나누기까지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죽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지독하게 길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 여행은 지루할 것입니다. 매우 길고 폭풍이 몰아치는 여행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직면해야 했던 어려움들이 결코 강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져보지 못한 짐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간직해오던 기대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육체는 탈진해 버리기 십상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참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자체의 삶조차도 힘들다고 하소연할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지쳐 있습니다. 폭풍의 한 가운데서 그분의 나라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트랙에서 벗어나 옆에 보이는 넓고 푸른 축구장 잔디에 그냥 뒹굴어져 버리고 싶은 욕구가 당신을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는 길이 너무나 멀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옳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해주실 것입니다. 그 분은 앞을 내다보고 행하는 아버지입니다. 그 분을 온 맘 다해 신뢰합시다. 그 분은 결국 당신을 자신의 처소로 데려가실 것이며 그 때 여행 중의 시련들은 잔치의 기쁨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터민을 향한 수 많은 노력과 섬김의 손길, 이 모든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새터민들이 이 땅에서 적응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순수복음이 귀하지만 생사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떡과 복음이 함께 전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우고, 살릴 수 있는 운동이나 노력이나 프로그램, 모두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앞서면 초점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역사적인 선교사,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그 분의 초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의 초점은 선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분 자체였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리면 가시적인 결과는 얻어낼 수 있을지언정, 궁극적인 목적달성에도, 해결책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생명을 나누기까지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되자. 그런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느 부분에서 까다롭게 때문에 비기독교인이 오히려 새터민청소년들에게 가깝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안타깝게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초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유럽이나 자신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함께 하실 때, 세상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나 지속적인 생명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 분께서 채워 주십니다. 그 분은 모든 필요한 자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터민청소년과 만날 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갈 때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마음이 어려울 때 필요한 희락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워 질 때 화평을 이루어 가실 분은 성령님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필요한 인내를 주실 것입니다. '생명친구'는 헌신이 아니라 마땅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답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여년 전에 가르쳐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15: 12~13)

마지막으로 오대원 목사의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에서 발췌한 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진실한 종들이 일어나
종들로서 조선을 섬기기 시작하며,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
사랑으로부터 섬겨야 할 때다.
하나님께서는 놀리운 방법으로 움직이실 것이다.
다가오는 부흥은 남한뿐만 아니라
전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어쩌면 북한에서 시작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온 세상의 국가들에게로 뻗쳐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거룩한 청년들이 새벽이슬 같은 새터민청소년들과 그 분의 사랑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북한과 민족과 나아가 세계열방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Ⅵ_부록

1. 북한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정의

남한에서는 청소년기의 구분을 9세에서 24세로 하고 이를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 고등학교 시기에서 대학졸업까지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흔히 10대를 일컬어 청소년이라고 하며,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 에 나온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보면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 을 뜻하며 청년이란 '젊은 나이의 사람을 소년, 장년, 노년 등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이고, 소년이란 '아직 청년이 되지 못한 어린이'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청소년이란 인민학교에 다니면서 소년단원으로서 조직생활을 하는 만 7세부터 13세까지의 소년들과 또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원으로서 정치적으로 조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14세부터 28까지의 청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년단원들과 사회주의 청년동맹원들을 총칭하여 청소년이라고 하고 사회주의 청년동맹원들과 대학생들을 총칭해서는 청년학생이라고 부르며, 또한 이들 청소년과 청년, 학생 등을 총칭해서 전부 새 세대라고 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통일부자료

(1) 정책추진 방향

1) 자립형 : 정착금 지급 관련, 인센티브제 도입 및 취약층에 대한 보호 강화

① 정착금의 전체지급수준은 유지하되, '기본금' 과 취업노력을 유도하는 '장려금' 으로 구분 지급함으로써 자립□자활을 유도

② 노령자, 중증장애자, 편부모아동보호 세대 등 취약층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금' 상향 조정

③ 생계급여 개선 : 지급기준 우대 폐지, 거주지 정착 후 1 년부터는 근로조건부(자활노력) 급여

2) 맞춤형 : 개인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응교육, 취업 및 취학 지원 추진

① 사회적응교육 : 교육기간 연장(2 개월→3 개월), 취업□취학 연계, 현장체험, 준법교육 등

②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설립, 민간단체의 학습지원활동 후원

③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신설, 탈북자들을 위한 독자반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 확대

① 거주지 정착도우미제 실시
② 지역협의회 활동 강화
③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06 년 예산증액:3 억 7 백만원→17 억원)

(2) 현행 정착지원의 내용

〈표-2〉새터민에 대한 주요 정착지원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국내입국자 모두에게 1,000 만원 기본금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1,540 만원의 장려금 지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 만원의 가산금 지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000 만원 지원금 지원
취업	직업훈련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취업보호제)	새터민을 채용한 사업장에 급여의 1/2 을 24 개월간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46 개 고용안정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 · 알선 역할 담당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 지원(月 약 36 만원)
	의료보호	의료보호 1 종 수급권자로서 의료 혜택
교육	대학 특례 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등록금 지원	중 · 고 및 대학교 등록금 지원
정착도우미	-	새터민 1 세대당 2 명의 민간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생활 지원(전국 1,200 명)
자격인정	-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전부 또는 일부 인정

1) 정착금

① 정착기본금(주거지원금 포함)

(단위: 만원)

가족수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주거지원금	합계
1 인	300	700	1,000	2,000
2 인	400	1,000	1,500	2,900
3 인	500	1,300	1,500	3,300
4 인	600	1,600	1,500	3,700
5 인	700	1,900	1,500	4,100

6 인	700	2,200	1,500	4,400
7 인이상	700	2,500	1,500	4,700

정착기본금은 사회배출 초기에 기본적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의한 것으로 세대단위로 지원

② 장려금

구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5 개월 이하	-	미지급
	6~12 개월	개월×20 만원	
	1 년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 직종 수료	200	추가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1 년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 직종	200	
취업 장려금	1 년차	200	
	2 년차	300	
	3 년차	400	
총액(최고액) 1,540 만원			

정착장려금은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 장려금으로 구성되며, 경제활동 가능인구의 자립 · 자활 유도를 위한 정착금

③ 가산금

구분	지급기준	지급수준(단위:만원)
연령 가산금	만 60 세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등급	1,540(1 급), 1,080(2-3 급), 360(4-5 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병으로 3 월이상 입원	개월×80
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	편부모 아동	360(세대당)

정착가산금은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정착금
'05 년 제도개선시 정착가산금 가액을 대폭 상향했으며, 결손가정아동보호가산금 신설

2) 학력 및 자격인정

북한 또는 제 3 국 체류시 취득한 학력과 자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에 상응하는 학력과 자격을 인정
자격인정을 받는데 필요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 기회 제공

향후 의사, 교사 등 전문직 경력이 있는 새터민이 소정의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격인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3) 주거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영구 공공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알선

배정 지역은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득이하게 희망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경우 차선 희망지역으로 배정

북한이탈주민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금 지원 - 단독 세대 : 1,000 만원, 2 인 이상 세대 : 1,500 만원

4) 사회안전망에 의한 지원

① 현금급여(생계급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지급(다음의 현금급여 기준 한도 내에서)

통상 생계급여로 지칭되는 것은 현금급여액을 의미하며, 현금급여액이 새터민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② 현금급여 지급 기준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1 인세대	36 만원	4 인 세대	100 만원
2 인세대	60 만원	5 인 세대	116 만원
3 인세대	80 만원	6 인 세대	132 만원

사회배출 1 년차까지는 조건 없이 급여실시, 1 년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현금급여 지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특례를 인정, 현금급여액 산정시 현 세대구성원 수에 1 인을 추가하여 현금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

5) 의료보호

①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가족 포함)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보호 1 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 치료(특수진료 제외) 등 의료혜택

② 1 종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등 국가차원의 보호대상자중에서도 일부계층에만 적용되는 제도

6)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또는 제 3 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재외국민특별전형에 의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편ㅁ입학

①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 時 만 25 세 미만인 경우에 학비가 전액 면제

②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편입학 時 만 35 세 미만인 경우 국립대학은 전액 면제, 사립대학은 국가와 학교가 각각 1/2 을 분담

탈북청소년특성화학교(한겨레학교) 설립

③ 설립목적: 탈북 청소년들의 정규학교 부적응 현상을 해소

④ 추진일정:'06.3 시범학급 임시개교, 07.3 정식개교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⑤ 학습보충 프로그램: 한빛복지관 등 3 개 단체

⑥ 대안프로그램: 하늘꿈학교 등 6 개 단체

7) 취업지원

① 고용지원금 제도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기업주에게 임금의 2 년간 1/2 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기회를 확대

- '02 년 고용보험 가입의무화 및 지자체에 고용지원금 수급자 통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고용지원금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 '05 년 정착장려금 도입, 생계급여 특례제도 개선 등에 따라 고용지원금 신청자 수가 ' 04 년 대비 64% 증가

고용지원금 지원 현황

	' 01	' 02	' 03	' 04	'05	'06 1 분기
업체수	226	274	240	218	323	232
인 원	251	296	281	269	446	309
지급액 (단위 : 천원)	999,655	1,130,250	1,094,160	944,612	**1,426,281**	397,943

(단위 : 천원)

② 직업훈련

새터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 무상 실시, 훈련기간중 훈련수당을 지급

-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신설, 북한이탈주민 독자반 운영

-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새터민이 취업과 관련된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점을 감안, 전문직업훈련 이전단계의 기본소양 교육과정 신설

구분	훈련인원	성별	
		남	녀
'98	50	36	14
'99	91	72	19
'00	96	62	34
'01	217	108	109
'02	494	244	250
'03	745	351	394
'04	1,080	481	599
' 05	760	243	517
계	3,533	1,597	1,936

8) 각종 거주지 지원업무

① 정착도우미제

- 새터민이 거주지 정착초기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 새터민 1 세대당 2 명의 민간자원봉사 정착도우미를 지정,
- 하나원 수료 후 1 년간 지역사회 안내, 각종 고충상담 등의 역할 수행
- '05.1 부터 시행, 현재 약 1,200 여명의 정착도우미 활동

② 보호담당관제도

- 거주지보호담당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 새터민의 거주지 편입 및 각종 행정지원업무 담당

  현재 전국적으로 182 명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 의료급여 ·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지원, 지역사회 관련 정보제공 등의 역할 수행

-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46 개 고용안정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로 구성된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새터민의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의 역할 담당

-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약 700 여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 외부의 신변위해 관련 상담 역할 담당

③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30 조에 의거 설립된 법정 단체로서, 새터민 사회적응지원사업 및 상담역할 담당

④ 지역협의회

- 지역내 보호담당관, 지역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 새터민 정착에 필요한 생활실태 파악 등 각종 애로·상담 창구 역할 수행
- 현재 전국적으로 새터민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16 개 지역협의회가 구성

〈표-3〉북한이탈주민 국내수용 현황

구분	' 00	' 01	' 02	' 03	'04	'05	'06.6	계
인원	312	583	1,139	1,281	1,894	1,383	878	7,470

(※ '06.6 국내에 수용한 총 인원은 8,565명임.)

3. 새터민청소년에게 보내는 한동대 학생들의 편지

안녕! 친구야. ··· 나는 너를 친구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단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너의 친구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친구가 되기 원하시거든.
이해인님의 '친구' 라는 시, 같이 감상해볼해?

부를때마다
내 가슴에서 별이 되는 이름
존재 자체로
내게 기쁨을 주는 친구야
오늘은 산숲의 아침 향기를 뿜어내며
뚜벅뚜벅 걸어와서
내 안에 한 그루 나무로 서는
그리운 친구야

때로는 저녁노을 안고
조용히 흘러가는 강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메마름을 적셔 주는 친구야

어쩌다 가끔은 할말을 감추어 둔
한 줄기 바람이 되어
내 안에서 기침을 계속하는
보고 싶은 친구야

보고 싶다는 말 속에 들어 있는
그리움과 설레임
파도로 출렁이는 내 푸른 기도를
선물로 받아 주겠니?
늘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때
빙긋 웃으며 내 손을 잡아 주던
따뜻한 친구야
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모였다가
어느 날은 한 편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나 보다

때로는 하찮은 일로 너를 오해하는
나의 터무니없는 옹졸함을
나의 이기심과 허영심과 약점들을
비난보다는 이해의 눈길로 감싸 안는
친구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땐
눈물나도록 아픈 충고를 아끼지 않는
진실한 친구야

내가 아플 때엔
제일 먼저 달려오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엔
함께 울어 주며
기쁜 일이 있을 때엔
나보다 더 기뻐해 주는
고마운 친구야
고맙다는 말을 자주 표현 못했지만
세월이 갈수록
너는 또 하나의 나임을 알게 된다

너를 통해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

참을성 많고 한결같은 우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본다
늘 기도해 주는 너를 생각하면
나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
나도 너에게 끝까지
성실한 벗이 되어야겠다고
새롭게 다짐해 본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 못해
힘든 때도 있었지만
화해와 용서를 거듭하며
오랜 세월 함께 견뎌 온 우리의 우정을
감사하고 자축하며
오늘은 한 잔의 차를 나누자
우리를 벗이라 불러 주신 주님께
정답게 손잡고 함께 갈 때까지

우리의 우정을 더 소중하게 가꾸어 가자
아름답고 튼튼한 사랑의 다리를 놓아
많은 사람들이 춤추며 지나가게 하자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좋은 벗이 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이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행복한 이웃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벗이 되자
이름을 부르면 어느새 내 안에서
푸른 가을 하늘로 열리는
그리운 친구야...

참 마음이 따뜻하게 해주는 글이다. 그치? ‥ 너도 나에게 그런 존재인 것 아니?

너와 내가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대학교 '한동대학교' 에 와서 함께 공부하고, 지내면서 우리도 훗날 위 시인의 고백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기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닌 남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한동대학교에 오지 않을래? 진실함과 기대함으로 너를 초청하고 싶다.

한동대학교 NKFR 일동..